

제세당 문기홍의 생애와 부산지역 활동

박 훈 평*

| 목 차 |

- I. 머리말
- II. 문기홍의 가계
 - 1. 기존 자료 고찰
 - 2. 새로 발굴된 자료 고찰
- III. 유년기 및 청장년기
 - 1. 학업 시절
 - 2. 자선활동의 문의생
 - 3. 문익점 후손으로서 유림 단체 결성
- IV. 노년기
 - 1. 극빈자는 침약 무료 치료
 - 2. 용두산 기도회, 단군 숭배 종교 활동
 - 3. 문기홍의 제자들
- V. 맺음말

| 국문초록 |

본고를 통하여 일제강점기부터 1950년대에 걸쳐 부산을 중심으로 경상도 지역에서 활동했던 제세당 문기홍(1881~1958년에서 1962년 사이)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고찰하였다.

* 동신대학교 한의예과 교수 / lillipute@dsu.ac.kr

문기홍은 의료인, 유림, 종교인으로서 부산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다.

의료인으로서 문기홍은 임상가로서 부산을 중심으로 경상도 전역에 명성을 떨쳤고, 임상 의학서를 저술하였다. 또한 그는 한의학계에 종사하는 제자들도 길러내는 교육자이기도 했다.

유림으로서 문기홍은 본인이 문익점의 후손임을 내세우면서,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유림단체를 결성하고 관련 책들도 출간하였다.

종교인으로서 문기홍은 부산을 중심으로 단군계 종교 단체를 만들어 활동하면서 책을 출간하였다. 예를 들어 1950년대 중반에는 용두산기도회를 설립하였다.

문기홍은 일제강점기와 1950년대 부산을 중심으로 의료인, 유림, 종교인으로서 활발히 활동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는 한의계에만 후대에 유산을 남겼고, 유림과 종교인으로서의 후대 영향은 거의 없고 당대에 그쳤다. 그가 활동했던 단체들은 개인의 높은 명성에 기대어 만들어져서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다.

문기홍의 단군 숭배 사상의 발로는 ‘제세(濟世)’의 관점에서 해석할 부분이 있다. 의료인으로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무료 치료나 집 잃은 이재민들을 위한 기도회나 제세라는 맥락은 같다.

결론적으로 문기홍은 그의 호처럼 ‘제세’의 관점에서 의료인에서 시작하여 유림과 종교 등 사회 활동을 하였다. 그는 개인에서 시작하여 집단을 구제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부산, 한의사, 문기홍, 제세당, 의생, 용두산.

I. 머리말

일제강점기 여러 신문을 통하여 부산을 중심으로 경상도에서 활동하던 한 의료인의 미담이 전해졌다. 1924년 4월 8일 『매일신보』의 ‘자선 활불의 문의생’ 기사에서 “경남 부산부 부평정 제세당주인 문기홍씨는 원래 유명한 한의로서 삼십여년 간에 수천의 인명을 구제하였스되 빈궁한 환자에게는 침구 및 진찰을 무료로 시여함으로 세인이 칭하여 활불

이 재세(再世)라 하며 그 문인이 제세당의 간판을 걸어 기록하고[揭記] 각자 출의하여 문씨의 위대한 의술과 자비한 덕행을 영세유전코저 하는 성심으로 부산 부평정 또는 동래군 남면 가로(街路)에 석비를 세우고 문씨의 공덕을 칭송한다더라(부산).”라고 하였다.¹⁾ 1931년 11월 18일 『동아일보』의 ‘빈자 무료치료, 제세당의사 문기홍씨’ 기사에서는 “본적을 부산에 두고 지금 울산읍 옥교동에 와서 일반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제세당 의사 문기홍씨는 일찍부터 침구술을 연구하여 마산, 창원, 포항, 경주 등 경상남북도를 다니며 보통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중병을 많이 고치는 중 특히 빈한한 환자에게는 약까지 무료로 써가며 친절히 고쳐줌으로 금번 김용택 외 여러 명[數氏]의 발기로 자선비를 내리라 한다.”²⁾라고 하였다. 1932년 11월 6일의 같은 신문 기사에서는 ‘의술로 유명한 문기홍씨’라는 제목 아래 “고금으로 병을 잘 고치는 이를 편작이라고 한다. 제세당 문기홍씨는 부산을 위시로 동래, 대구, 감포, 포항 등지에 그의 의술로 불치의 병이 전패된 이가 그 수가 많아서[其數不知하여] 문선생의 간 데마다 공적비가 서고 지난 겨울[昨冬]에 수십명의 중병자를 고쳐 그 명성이 자자한데 특히 침구술이 능숙하여 일차 문선생의 수술을 받으면 여하한 난병이라도 쉽게[용이히] 전치(全治)되어 일반의 신임이 자못 두텁다 한다.”라고 하였다.³⁾

신문 기사에 따르면 문기홍은 침구술이 몹시 뛰어난 한의사인데, 무료로 환자를 고쳐주기까지 하여 ‘살아있는 부처’라 불렸다. 특히 두 번째 기사는 각 지방의 사업가, 교육자 등 다양한 직업군의 인물을 소개하는 내용 일부로 의료인 중에서는 그가 유일하였다. 당시 그의 명성이 부산을 넘어 경상도 전역에 알려진 셈이다.

1) 『매일신보』 1924. 4. 8. 4면, ‘자선 活佛의 文醫生’.

2) 『동아일보』 1931. 11. 18. 2면, ‘貧者 無料治療, 濟世堂의사 文基洪氏’.

3) 『동아일보』 1932. 11. 6. 4면, ‘醫術로 有名한 文基洪氏’.

또 문기홍은 한의계에 잘 알려진 임상가였다. 그는 자신의 임상 경험을 담은 의서 『제세보감(濟世寶鑑)』을 1933년에 간행하였다. 이 책은 1966년과 1975년에 재간되었고,⁴⁾ 2016년에는 국역본도 간행된 바 있다.⁵⁾ 그는 의서 외의 다양한 책의 출간에도 관여하였고, 이 책들은 현재 여러 기관에 소장되어 있다.

그러나 문기홍의 행적은 신문 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알려진 바 없었다. 그가 저술한 여러 책 중에는 상세한 연보가 실린 것도 있으나, 대개 그의 문하생들이 기록한 것으로 이것만으로는 사실 여부를 검증하기 어려웠다. 그러기에 기존 연구에서도 문기홍의 생애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고찰이 없었다.⁶⁾

근래 문기홍이 수록된 족보 자료가 새롭게 발굴되면서 선행 연구 외에 새로운 논의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⁷⁾ 또한 최근 부산동양의학전문학원을 통하여 1950년대 부산이 초기 한의계 교육 중심지임을 소개하는 연구가 있었다.⁸⁾ 문기홍에 대한 연구는 부산동양전문학원 설립 이전 시기 부산 한의계의 다른 면모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여러 관련 문헌과 자료를 살펴서 문기홍의 알려지지 않은 행적들을 보완하고 역사적 검증을 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부산지역에서 활동했던 문기홍의 생애 전반을 재구성하고자 한다.

4) 구현희, 「일제강점기 임상한의서 제세보감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9-2, 2016, 36쪽.

5) 문기홍 저, 구나희·오준호 역, 『국역 제세보감』, 한국한의학연구원, 2016.

6) 구현희, 앞의 논문, 36쪽. 김남일, 『한의학에 미친 조선의 지식인들』, 들녘, 2011, 99~100쪽; 김남일, 「의서의 간행을 중심으로 살펴본 일제 강점기 한의학의 학술적 경향」, 『의사학』 15-1, 2006, 97~98쪽; 류영희·신민교·맹웅재, 『한국의학인명사전』, 의성당, 1991, 34쪽. 특히 류영희 등은 문기홍의 생년을 1838년으로 잘못 기록하였다.

7) 2021년 11월 26일에 개최된 한국의사학회 제33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이 자료가 처음으로 소개된 바 있다.

8) 박훈평, 「1950년대 부산동양의학전문학원」, 『향도부산』 49, 2023, 239~268쪽.

II. 문기홍의 가계

1. 기존 자료 고찰

1933년 간행된 『제세보감』에 수록된 조성덕(趙性德)의 ‘제세당문선 생행략(濟世堂文先生行略)’을 보면 문기홍의 본관은 남평이고 강성군(江城君) 문익점(文益漸)의 후손이라고 하였다<그림 1>.⁹⁾ 문기홍이 부산 수정동에 강성군 문익점을 배향하는 동일서원(東一書院)을 만들고 서원장을 지내는 등 관련 활동을 하는 행적에서도 문익점의 후손임이 확인된다. 1937년의 『대동문묘창건시집』에 수록된 ‘제세당경력(濟世堂經歷)’에는 문기홍의 경력이 상세하게 설명 되어있다<그림 1>.¹⁰⁾ 문기홍을 지칭하면서 자(字)인 ‘회동(晦東)’으로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본인이 직접 저술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의해 저술된 것이다. ‘제세당경력’을 보면 문기홍은 1881년(고종 18) 1월 12일 경북 선산군(현재 구미시로 통합) 해평면에서 현감공과 부인 손씨 사이에서 태어났다.¹¹⁾ 그러나 현감공이 누구인지 선계에 대한 설명은 없다. ‘제세당경력’에는 문기홍이 통정대부, 공릉참봉(恭陵參奉), 중추원 의관을 지냈다고 되어있지만, 이 관력은 사료로서 확인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경력에서는 문기홍이 22세 6월에 공릉참봉 직을 받았다고 하였는데¹²⁾ 그렇다면 1902년 전후에 참봉 임명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승정원일기』를 보면 1902년 6월 당시 공릉참봉은 서병위(徐丙煒)로서,¹³⁾ ‘제세당경력’의 내

9) 문기홍, 『제세보감』, 제세당약방, 1933a, 4쪽. ‘濟世堂文先生行略’.

10) 문기홍, 『대동문묘창건시집』, 간행처 미상, 1937, 65~84쪽. ‘濟世堂經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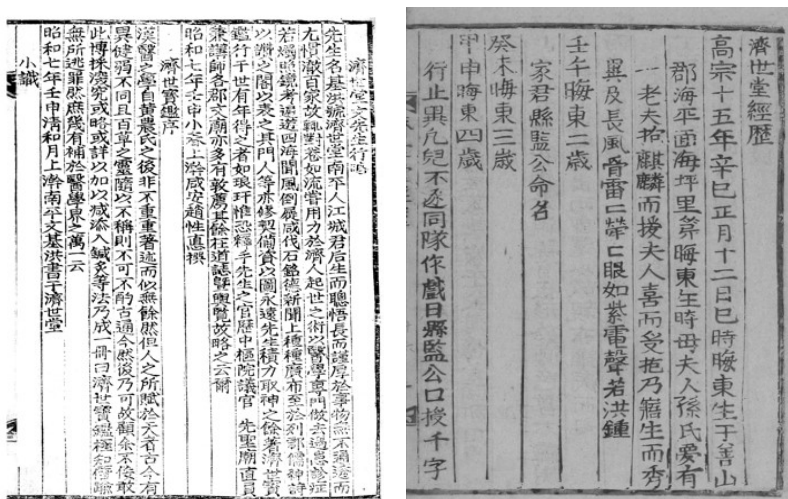
11) 문기홍, 앞의 책, 65쪽. 원문에는 “신사년 고종 15년”으로 되어있는데 고종 15년은 오기이다.

12) 문기홍, 앞의 책, 70쪽.

13) 『승정원일기』 1902. 3. 22. (국사편찬위원회(<https://sjw.history.go.kr/id/SJW-K39030220-00300>) 검색일자: 2024.8.9.).

용과 서로 다르다.

〈그림 1〉‘제세당문선생행략’과 ‘제세당경력’



출처: 『제세보감』, 『대동문묘장건시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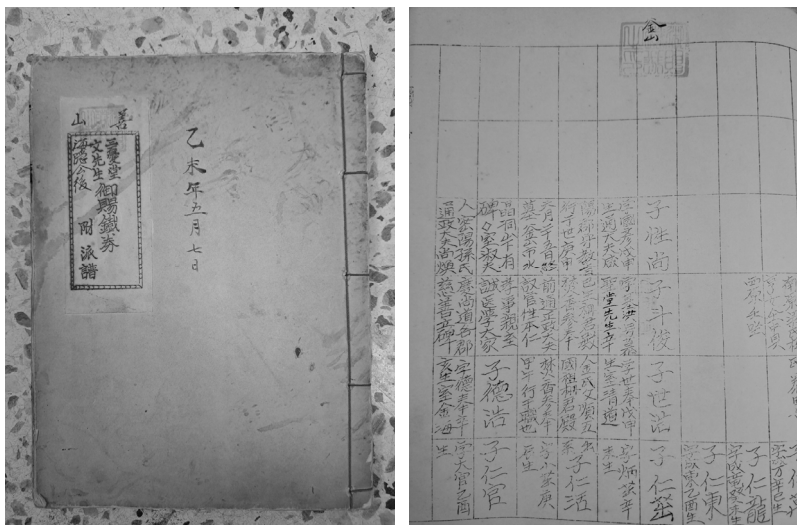
2. 새로 발굴된 자료 고찰

근래 문기홍의 가계에 대한 새로운 자료가 발굴되었다. 이 자료는 개인소장본으로 1955년에 간행된 『삼우당문선생어사철권 부파보(三憂堂文先生御賜鐵券 附派譜)』이다. 이 책 후반부에 문기홍 관련 족보가 수록되었다(그림 2).¹⁴⁾ 당시 부산에 거주하는 집안이므로 문기홍 가계는 특별히 상단 여백에 ‘부산’으로 기록하였다. 이에 따르면 문기홍의 족보명은 ‘문두준(文斗俊)’이고 함양군수를 지낸 문국언(文國彦)의 외아들이다. 그런데 ‘제세당경력(濟世堂經歷)’에서 아버지를 현감공이라 칭하였는데 종4품인 군수는 종6품인 현감보다 높은 관직이므로, 원래는 문

14) 문기홍, 『삼우당문선생어사철권 부파보』, 국조단군경모통일회본부, 1955, 56~62쪽.

국언은 현감공이 아닌 군수공이라 칭해야 옳다. 그런데 함양군수를 지낸 역대 선생안을 살펴보면 문씨를 가진 인물이 군수를 지낸 바 없다.¹⁵⁾ 따라서 문국언이 실제 함양군수를 지냈는가는 불확실하다. 앞서 문기홍의 공릉참봉 관직 제수에서도 살펴보았지만, 문기홍 저술에서 관력 관련된 내용은 사실로 보기에는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 또 족보에는 문기홍의 아버지와 문기홍의 첫 아내 남원양씨의 묘소를 부산시 수정동이라 하였다. 문기홍은 양재현(梁在賢)의 딸과 결혼하였고, 아내가 죽은 뒤에 서씨와 재혼하였다.

〈그림 2〉 문기홍의 가계



출처: 『삼우당문선생어사철권 부 파보』

1955년 간행 『삼우당문선생어사철권 부 파보』를 통한 문기홍의 가계도는 다음과 같다<표 1>. 문기홍은 문국언(족보명 성상)의 외아들로

15) 『역대군수』(함양소통군수실(<https://www.hygn.go.kr/01295/01322.web>) 검색일자: 2024. 8. 8.).

태어나 아들 4명과 딸 4명의 자녀를 두었다. 이 가계는 『남평문씨 대동보』에 따르면 의안공파 중 해은공파에 속하며 문기홍은 30세에 해당한다.¹⁶⁾ 의안공파는 문익점의 셋째 문중실(文中實)을 중시조로 하는 파이다.

〈표 1〉 문기홍의 가계도

彌周 / 1786~1848 通政大夫											
永赫 / 1805~1881 贈工曹參判											
景尙 1832~1890 通政				正尙 1836~1897 通政				性尙(국언) 1848~1920 咸陽郡守		根尙	永尙
斗章 1846~1949 通政, 議官		斗元 1868~1912		斗八	斗萬	斗杓	斗兆	斗俊(기홍) 1881~ 檀君殿焚香參奉, 前 通政		斗萬	斗運
詳浩 1904 ~ 檀君 殿參 奉	琪浩	平浩	實浩	道浩	出系	奉浩	永浩 ~ 檀君 殿參 奉	德浩 1909 ~ 檀君 殿參 奉	廣浩 1920 ~ 檀君 殿參 奉	達浩 1920 ~ 檀君 殿參 奉	琪浩 性浩

1970년 간행된 『남평문씨의안공파보』에는 『삼우당문선생어사철권 부 파보』처럼 문국언, 그 아들 문기홍, 문기홍의 네 아들이 모두 수록되었다. 문기홍은 자를 장준(章俊), 호를 제세(濟世)라 하였고, 첫째 세호(초명 세봉), 둘째 제덕(초명 덕봉), 셋째 제주(초명 광주), 넷째 제달(초명 달주)이라 하였다. 사위들에 대한 기록은 없고, 부기된 내용도 『삼우당문선생어사철권 부 파보』보다 소략하다.¹⁷⁾

가장 최근의 대동보인 1995년 간행 『을해보』에는 문기홍의 아버지와

16) 남평문씨대중회, 『남평문씨대동보 권16』(을해보), 뿌리출판사, 1995, 746쪽.

17) 남평문씨의안공파, 『남평문씨의안공파보』, 간행처미상, 1970, 276쪽.

그 동생들이 누락되었다. 그런데 문기홍의 백부인 문정상의 둘째아들 문두만이 ‘출계’로 표시되면서도, 양부가 된 문근상의 내용은 족보에 없다. 그러므로 문기홍의 백부 문경상과 문정상의 후손만 족보 수단을 제출하여 실리고, 3남 문성상과 그 후손은 알 수 없는 이유로 빠진 것으로 추정된다.

Ⅲ. 유년기 및 청장년기

1. 학업 시절

『대동문묘창건시집』에 수록된 ‘제세당경력’에는 문기홍의 유년기에 대한 기록이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다.¹⁸⁾ 이에 따르면 문기홍은 선산군 해평면 해평리에서 태어나 아버지에게서 천자문을 배웠고, 10세에 백부에게서 수업하였다. 문기홍은 계속 학업에 정진하여 16세에 『대학』을, 18세에 『중용』을 배웠다. 19세(1899년)에 양재현(梁在賢)의 딸과 혼인하였다. 스무 한살에 처음으로 의학을 전문으로 하였는데 따로 스승이 없이 독학하였다. 22세(1902년)에 공릉참봉(恭陵參奉)을 제수 받아서, 통정대부(通政大夫), 중추원의관(中樞院議官)이 되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관직 제수는 다른 사료로는 고증되지 않는다.

2. 자선활동의 문의생

문기홍이 처음 세상에 알려진 것은 1924년 4월 8일 『매일신보』의 ‘자

18) 문기홍, 1937, 65~72쪽. 문기홍의 생년을 ‘고종 15년’(1878년)이라 하였는데, 실제로는 ‘고종 18년’(1881년)이므로 오류이다. 따라서 다른 이력도 3년 정도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

선활불의 문의생' 기사였다.¹⁹⁾ 의생 면허는 일제강점기 전통 의료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부여되었던 진료 면허로서 신문 기사에 따르면 당시 그는 부산부 부평정(현재 부산시 중구 부평동)에서 제세당(濟世堂)을 운영했다. '제세당경력'을 보면 문기홍이 약국을 운영하기 시작한 것은 1908년으로 첫 아들이 태어난 해였다.²⁰⁾

그런데 문기홍은 1924년 당시 의생 면허가 없었다. 그가 1933년 간행한 『제세보감』을 보면 의생 외에 침술사, 제약사, 약종상 허가를 받았다고 되어있으므로, 의생 면허를 취득하기 이전에는 한약 관련 다른 자격증을 가지고 진료했을 것이다<그림 3>.²¹⁾ 1924년 4월 28일 『매일신보』의 4월 24일 부산부 초량정에서 있었던 한약업조합 총회 기사를 보면 문기홍은 부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²²⁾ 부산 한약업조합은 약종상 관련 단체로 추정된다. 일제강점기 침술사나 약종상 명부는 현재 남아있지 않아서 의생 외의 문기홍이 가진 자격증은 확인할 수 없다.

〈그림 3〉 문기홍 면허 관련 기록



출처: 『제세보감』

문기홍이 의생 면허를 받은 것은 1930년이였다. 당시 받을 수 있는 의생 면허는 일정 기간을 지나면 갱신해야만 하는 면허였고, 문기홍은 1933년에 면허를 갱신하고 1935

19) 『매일신보』 1924. 4. 8. 4면, ‘자선 活佛의 文醫生’.

20) 문기홍, 1937, 72쪽.

21) 문기홍, 1933a, 3쪽.

22) 『매일신보』 1924. 4. 28. 4면, ‘漢藥業組合總會’.

년에는 폐업으로 면허를 반납하게 된다(<그림 4>).²³⁾ 따라서 그가 의생 면허를 보유한 것은 1930년에서 1935년 사이의 기간뿐이다.

〈그림 4〉 문기흥 의생 면허발급과 반납 기록

출처: 『조선총독부 관보』

『제세보감』은 문기흥이 운영하던 울산 제세당약방에서 간행되었는데, 그의 주소는 판관지에 따르면 경남 울산군 울산읍 옥교동 160번지였고²⁴⁾ 진료도 울산에서 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년의생은 정해진 지역 내에서만 진료해야 하는 지역 제한이 있었다.²⁵⁾ 문기흥의 의생 면허는 법적으로는 부산부 청학동(靑鶴洞)과 동삼동(東三洞) 내에서만 인정되었고,²⁶⁾ 이 지역은 현재의 부산시 영도구 지역에 속한다. 한년의생 면허의 진료 지역은 결원이 생긴 지역에 한하여 시험에 합격하여 들어가

23) 『조선총독부 관보』 1930. 8. 7·1933. 7. 31., ‘의생면허발급’; 『조선총독부 관보』 1935. 10. 9., ‘의생면허반납’; 박훈평, 『일제강점기 의생 총목록 3』, 한국한의학연구원, 2017, 116쪽.

24) 문기흥, 1933a, 판권지.

25) 박훈평, 『일제강점기 영년의생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9-1, 2016, 33~34쪽.

26) 『조선총독부 관보』 1930. 8. 7.

는 방식이었다. 문기홍이 의생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실제 진료를 했던 지역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었다. 문기홍의 의생 면허 반납 이유는 실제 면허를 받은 지역에서 진료를 보지 않았던 상황과 관련될 수 있다.

당시 문기홍은 뛰어난 의술로 많은 문하생과 추종자들이 있었다. 『제세보감』을 비롯한 여러 저술에는 그의 공적을 기리는 석비가 당시 9곳에 세워졌다고 기록되었다. 그 지역들은 포항읍, 감포항, 경주 석굴암, 울산읍 언양면, 양산 통도사, 동래 좌수영, 마산 봉화령, 칠원 구산으로 경상도 전역에 걸쳐 있다.

문기홍은 여러 신문에서 침구술이 뛰어났다는 당대의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의 의서인 『제세보감』에서도 질환마다 약 처방 외에도 침구법을 제시하면서 방제 처방 이름과 침구법을 1:1로 대입해 놓은 점이 독특하다. 또한 부록에 침구 및 경혈에 도움이 될만한 사암침법 관련된 『찰병요결』 등의 서적 일부를 발췌하고 있다. 약 처방은 당시 유행하던 황도연의 『방약합편』의 상중하삼통(三統) 체제를 따르면서도 본인의 경험방을 추가하였다 <그림 5>.²⁷⁾ 삼통 체제란 처방의 약효에 따라 상중하로 나누어 처방을 배치하는 방식이다. 상으로 갈수록 약성이 원만한 처방이다.

<그림 5> 문기홍의 약과 침구 처방의 실제



출처: 『제세보감』

27) 구나희, 앞의 논문, 42쪽; 『제세당약방』, 제세당약방, 1933, 43쪽.

3. 문익점 후손으로서 유림 단체 결성

문기홍은 일제강점기에 진료 활동 외에 유림 관련해서도 많은 활동을 하였고, 이와 관련된 저작들도 다수 간행하였다<표 2>.²⁸⁾ 문기홍의 유림 활동 바탕에는 본인이 남평문씨 강성군(江城君) 문익점의 후손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성공한 의료인이라는 명성과 강성군 후예라는 점을 앞세우면서 경상도 지역을 넘어선 유림 조직을 만들고 사회 활동을 하였다.

〈표 2〉 일제강점기 간행된 문기홍의 저작 일람

	책 제목	간행 일시	간행처
1	대동명현강륜록(大東名賢綱倫錄)	1929. 3. 30.	울산 제세당약방
2	제세보감(濟世寶鑑)	1933.	울산 제세당약방
3	삼우당문선생어사철권 (三憂堂文先生御賜鐵券)	1933.	울산 제세당약방
4	대동문묘유안(大東文廟儒案)	1936.	부산 강성군동일서원
5	대동문묘창건시집 (大東文廟創建詩集)	1937.	간행처 미상
6	대동유림합동안(大東儒林合同案)	1939. 10. 17.	부산 강성군동일서원

『대동명현강륜록』은 1929년에 간행된 문기홍의 첫 저술로 우리나라 신라시대부터 유학에 정통하고 예절이 발라 기릴만한 역사 인물들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하여 모은 책이다. 약칭하여 ‘동현록(東賢錄)’으로 칭하기도 하였다. 이 책의 말미를 보면 문기홍은 관허(官許) 대동강륜록 사무소의 도약장(都約長) 및 도유사(都有司)로, 그의 둘째 아들 문덕봉(죽보명 덕호)은 대동강륜록 사무소의 도유사대변으로 직위를 기록하

28) 문기홍, 『대동명현강륜록』, 제세당약방, 1929, 판권지; 문기홍, 1933a, 판권지; 문기홍, 1937, 2~3쪽; 문기홍, 1939, 판권지.

였다.²⁹⁾ 대동강료록 사무소는 경상남북도를 중심으로 하여 전국에 조 직을 두었다.

1933년 간행된 『삼우당문선생어사철권』은 문익점(호가 삼우당)이 국왕으로부터 공훈으로 하사받은 철로 된 책 및 조선시대에 문익점과 관련하여 조정으로부터 받은 수교 등을 담았다.

1936년의 『대동문묘유안』은 대동유림 및 동일서원의 간부와 직원 명 부이다. 동일서원은 강성군 문익점을 배향한 서원으로 당시 부산부 수 정정 844번지에 있었다.

1937년의 『대동문묘창건시집』은 책 제목대로 대동문묘 창건을 기념 하는 시집이다. 후반부에 실린 ‘제세당경력’을 보면 1937년에 대동문묘 전후의 사역이 마무리되었다고 되어있다.³⁰⁾ 판권지가 없어서 간행처를 알 수 없으나 이후에 나온 『대동유림합동안』의 간행처로 볼 때 부산 동 일서원으로 추정된다. 동일서원은 문기홍의 자료 외에 다른 기록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현재 부산에는 동일서원이 존재하지 않는데, 동일서 원의 철폐 과정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향후 새로운 자료의 발굴 이 필요하다.

1939년 간행된 『대동유림합동안』은 기존 『대동문묘유안』 내용에 조 선유교회 등 당시 친일적인 관변 유림 단체의 명부도 수록되었다. 이 책 을 보면 문기홍은 대동유림 대표 도유사, 장남 문세봉(족보명 세호)은 부산 대표란 직위였다.³¹⁾

문기홍은 울산에서 약방을 운영하면서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 유림 단체를 주도적으로 결성하였고, 대표 자리에 올랐다. 그러나 이들 단체의 활동에 대해서는 당시 언론에도 언급이 없고, 간행된 책들 외에

29) 문기홍, 앞의 책, 1929, 81~82쪽.

30) 문기홍, 앞의 책, 1937, 82쪽.

31) 문기홍, 앞의 책, 1939, 32·34쪽.

별다른 기록이 없어서 출간 외의 다른 사회 활동 자체는 미비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IV. 노년기

1. 극빈자의 침약 무료 치료

문기홍은 일제강점기 한년의생 면허가 있었으므로, 광복 이후 한지한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다. 1951년 공포된 국민의료법에 의하여 영년의생은 한의사, 한년의생은 한지한의사 면허를 받았다. 그런데 이 시기 문기홍이 한년의생 면허를 한지한의사 면허로 갱신했는가는 알 수 없다. 현재 한지한의사 면허 명부도 존재하지 않고, 문기홍은 초기 한의사 명부에도 수록되지 않았다.

부산지역 가장 이른 시기의 한의사 명부는 1954년의 명부인데 문기홍은 미수록되었다.³²⁾ 이 명부는 한지한의사들까지도 포함하는 명부인데, 문기홍이 한지한의사 면허로 갱신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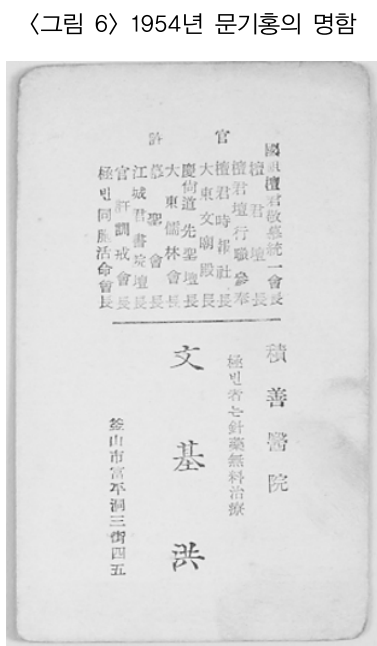
그러나 당시에 문기홍은 진료에 종사하고 있었다. 1954년 3월 15일에 그가 국조단군경모통일회 회장 직위로서 당시 국회 민의원 의장을 맡고 있던 신익희(申翼熙)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 내부에는 그의 명함이 동봉되었다<그림 6>. 명함을 보면 문기홍은 여러 직위가 있었는데 의원을 운영하면서 대동유림의 대표도 계속 맡고 있었다. 그의 진료기관은 부산시 부평동 3가 45에 위치한 적선의원(積善醫院)이었다. 해방 전후 시기에는 한의원도 의원으로 상호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명함에 “극빈자는 침약 무료 치료”라는 문구가 눈에 띈다. 젊은 시절부터 행

32)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상공명감』, 부산상공회의소, 1954, 360~365쪽.

했던 가난한 사람에 대한 무료 치료를 계속해왔던 것이었다. 1924년 4월 8일 『매일신보』의 ‘자선활불의 문의생’ 기사를 보면 문기홍은 부산 부 부평정에서 진료하였는데,³³⁾ 동네는 같지만 1954년의 한의원 위치가 1924년 당시와 같은 곳인가는 알 수 없다.

문기홍은 1954년 이후에도 계속 진료하였다. 1958년 허송암이 편찬한 『경험한방 학낭(經驗漢方鶴囊)』은 당시 유명했던 한의 명인들의 처방을 수록한 책인데, 문기홍의 처방도 수록되었다. 책 후반부에 처방이 수록된 한의사들의 명부가 있는데, 문기홍은 부산시 부평동 3가 45 위치에서 적선한의원(積善漢醫院)을 운영하였다.³⁴⁾ 이미 작고한 이들은 ‘故’라 표기했는데 문기홍은 그런 표시가 없으므로 당시까지만 해도 생존했었다.

1962년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전국 한의사 회원 명부를 처음 만들었다.³⁵⁾ 문기홍이 이 명부에 수록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962년에 이전에 이미 사망하였다. 그렇다면 문기홍의 몰년은 1958년에서 1962년 사이로 추정된다. 활발한 활동을 하던 문기홍도 1958년 『한방경험학』 이후에 언론 등에서 행적이 없다.



출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33) 『매일신보』 1924. 4. 8. 4면, ‘자선 活佛의 文醫生’.

34) 허송암, 『경험한방 학냥』, 전국한방의학종합연구회, 1958, 290~295쪽.

35) 대한한의사협회, 『서울특별시 각도 회원 명부』, 대한한의사협회, 1962.

2. 용두산 기도회, 단군 숭배 종교 활동

해방 이후 문기홍의 사회 활동은 『부산일보』를 통하여 파악된다. 그는 일제강점기에 유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것과 달리 이 시기에는 주로 단군 숭배 종교 활동을 하였다.

1949년 6월 30일, 단군귀일회(檀君歸一會)의 경남지부 결성 제1차 준비위원회가 부산 대청동에서 열렸는데, 그가 2명의 부위원장 중 한 명으로 선출되었다.³⁶⁾ 단군귀일회는 부통령 이시영과 황학수 등이 주축이 되어 1949년 5월 단군전봉건회(檀君殿奉建會)를 명칭을 바꾸어 만든 단체였다.³⁷⁾ 단군전봉건회는 대중교 측 인사들이 만든 단체였다. 단군귀일회는 총재 이시영과 부총재 황학수가 1953년 병사하면서 한국 전쟁기에 해체되었다.

이후 문기홍은 당시의 다른 개신유림들처럼 단군관련 단체들을 만들어 활동하였다.

그는 1953년 본인이 사장으로 있는 부산의 단군시보사(檀君時報社)에서 『국조단군지 부 고급명현록』을 간행하였다.³⁸⁾ 이 책은 단군과 유림을 통하여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이었다.

그의 1954년 명함<그림 6>을 보면 당시 국조단군경모통일회 회장이었다. 1955년 간행된 『삼우당문선생어사철권 부 파보』를 보면 문기홍과 그의 네 아들, 큰 조카에 대해 단군전분향참봉으로 기록하였다. 이들 단체는 단군귀일회와는 별개 단체인데, 모두 단군 숭배 활동과 관련된다.

문기홍은 1955년에는 수화예방 용두산 기도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회장을 맡았다. 용두산은 17세기 초량왜관 시절부터 일본인 조선 거류지

36) 『부산일보』 1949. 7. 12, 2.면. ‘檀君歸一會 慶南支部準委 結成’.

37) 『연합신문』 1949. 5. 19., 3면.

38) 문기홍, 『국조단군지 부 고급명현록』, 단군시보사, 1953, 판권지.

의 중심 위치여서 신사(神社)가 있었으며, 1899년에는 정식으로 신사로써 체계를 갖추었다. 이후 1932년에는 용두산신사가 국폐사(國幣社)로 승격되면서, 종교 내지 상징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되었다.³⁹⁾ 문기홍은 1955년에 용두산에 비석을 세우고 3차례 기도회를 진행하기도 하였다.⁴⁰⁾ 1953년 대규모 화재로 용두산 일대를 비롯한 피난민 판자촌에 많은 사상자와 이재민이 발생했기에, 미신적이지만 관청의 허락 하에 이러한 비석 건립과 행사가 진행된 것이다.

1956년에도 용두산 기도회는 가뭄으로 기우제를 지내기도 하였다.⁴¹⁾ 1956년 기우제를 지낼 때, 문기홍 다음으로 정태중(鄭泰鍾)이 같이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용두산 기도회는 국조단군경모통일회와 관련 단체이다. 정태중은 1954년에 신익희에게 국조단군경모통일회에서 편지를 보낼 때, 부회장 직위에 있었고, 단군시보사의 편집부장을 맡고 있었다.

1955년에 용두산에 만들어진 수화예방비(水火豫防碑) 등의 비석들이 현재도 남아있다<그림 7>.⁴²⁾ 현재 부산시 중구 용두산 공원의 팔각정 뒤편 수풀 사이에는 용두산신위비, 기도대회낙촬영모비, 충신보국비, 문기홍영모비의 4기 비석이 있다.

그런데 문기홍이 조직하고 활동했던 단군계 종교 단체들은 1950년대 중반 이후로 관련 활동 기록이 없다. 문기홍 개인의 높은 명성에 기대어 만들어졌던 단체들이었기에, 태생적으로 문기홍 사후에는 활동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39) 정지영·조승래·강영조, 『근대 용두산공원의 성립과 그 변용』, 『한국전통조경학회』 24-1, 2006, 71~76쪽.

40) 『부산일보』 1955. 4. 7, 2면. ‘火魔와 水難 없애주오 龍頭山에 龍의 碑 세우고 기도’.

41) 『부산일보』 1956. 8. 12, 3면. ‘龍頭山에서 祈雨祭 執儀’.

42) 『용두산신위비』(근현대사아카이브(<https://archive.much.go.kr/data/01/folderView.do?jobdirSeq=805>), 검색일자: 2024. 8. 9.).

〈그림 7〉 용두산공원 용두산신위비



출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문기홍의 단군 숭배 사상의 발로는 ‘제세(濟世)’의 관점에서 해석할 부분이 있다. 그러한 모습이 용두산기도회의 설립과 운영에서도 드러난다. 의료인으로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한 무료 치료나 집 잃은 이재민들을 위한 기도회나 제세라는 맥락에서는 같다. 그는 단군 숭배를 하면서 이를 통하여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의 책을 간행하고, 집 잃은 이재민을 위하여, 가뭄에 비를 바라며 기도회를 열었다. 이는 사람들의 실제 삶을 구제하고자 하는 일관된 활동이었다.

3. 문기홍의 제자들

『제세보감』을 보면 문기홍의 문하생이 수록되었다. 총 12명으로 김정호(金正鎬), 유공진(劉公珍), 김수경(金秀經), 이우성(李雨成), 김수량

V. 맺음말

일제강점기부터 1950년대에 걸쳐 부산을 중심으로 경상도 지역에서 활동했던 제세당 문기홍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고찰하였다.

본고에서는 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새로운 사실을 알았다.

먼저 문기홍은 남평문씨 의안공파 30세이다. 새로 발굴된 1955년 간행 『삼우당문선생어사철권 부 파보』와 1970년 간행 『남평문씨의안공파보』를 통하여 확인된다. 그는 해방 이후 부산에서 진료활동을 하였다. 1954년의 명함과 1958년 허송암의 『경험한방 학낭』을 통하여 확인된다. 1950년대 중반에 그는 부산에서 적선헌의원을 운영하였다. 마지막으로 그의 문하생 중에서 한의사와 한지한의사가 있다. 울산에서 활동한 이우성과 경남 하동에서 활동한 이용수이다.

문기홍은 의료인, 유림, 종교인으로서 부산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다.

의료인으로서 문기홍은 임상가로서 부산을 중심으로 경상도 전역에 명성을 떨쳤고, 임상 의학서를 저술하였다. 또한 그는 한의학계에 종사하는 제자들도 길러내는 교육자이기도 했다. 그는 부산과 울산에서 제세당을 운영하였고, 해방 이후 부산에서는 적선헌의원을 운영하였다.

유림으로서 문기홍은 본인이 문익점의 후손임을 내세우면서,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유림단체를 결성하고 관련 책들도 출간하였다. 그와 관련된 유림단체는 대동유림, 동일서원이 해당된다.

종교인으로서 문기홍은 부산을 중심으로 단군계 종교 단체를 만들어 활동하면서 책을 출간하였다. 예를 들어 그는 단군귀일회의 부산지부 결성에 관여하였고, 국조단군경모통일회, 단군시보사 등을 만들었다. 1950년대 중반에는 용두산 기도회를 설립하였다.

문기홍은 일제강점기와 1950년대 부산을 중심으로 의료인, 유림, 종

교인으로서 활발히 활동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는 한의계에만 후대에 유산을 남겼고, 유림과 종교인으로서의 후대 영향은 거의 없고 당대에 그쳤다. 그가 활동했던 단체들은 문기홍 개인의 높은 명성에 기대어만 들어져서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다.

문기홍의 단군 숭배 사상의 발로는 ‘제세(濟世)’의 관점에서 해석할 부분이 있다. 유교의 용어인 경국제세(經國濟世)는 나라를 다스리고 어지러운 세상을 구제한다는 뜻으로 국가와 사회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 과제였다. 경국제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구체적 실천이 필요하였다. 그러한 모습이 용두산 기도회의 설립과 운영에서도 드러난다. 의료인으로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무료 치료나 집 잃은 이재민들을 위한 기도회나 제세라는 맥락은 같다.

결론적으로 문기홍은 그의 호처럼 ‘제세’의 관점에서 의료인에서 시작하여 유림과 종교 등 사회 활동을 하였다. 그는 개인에서 시작하여 집단을 구제하고자 하였다.

자료의 미비로 문기홍의 몰년은 특정하지 못하였다. 새로운 자료가 발굴되어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행해졌으면 한다.

| 참고문헌 |

1. 사료

- 남평문씨대종회, 『남평문씨대동보 권16』(을해보), 뿌리출판사, 1995.
 남평문씨의안공파, 『남평문씨의안공파보』, 간행처미상, 1970.
 『대한민국 관보』(국가기록원).
 대한한의사협회, 『서울특별시 각도 회원 명부』, 대한한의사협회, 1962.
 대한한의사협회, 『회원 명부』, 대한한의사협회, 1971.
 『동아일보』(국립중앙도서관).
 『매일신보』(국립중앙도서관).
 문기홍, 『대동명현강릉록』, 제세당약방, 1929.
 _____, 『제세보감』, 제세당약방, 1933a.
 _____, 『삼우당문선생어사철권』, 1933b.
 _____, 『대동문묘유안』, 1936.
 _____, 『대동문묘창건시집』, 간행처미상, 1937.
 _____, 『대동유림합동안』, 강성군동일서원, 1939.
 _____, 『국조단군지 부 고금명현록』, 단군시보사, 1953.
 _____, 『삼우당문선생어사철권 부파보』, 국조단군경모통일회본부, 1955.
 _____, 구나희, 오준호 역, 『국역 제세보감』, 한국한의학연구원, 2016.
 『부산일보』.
 『승정원일기』.
 『연합신문』.
 『조선총독부 관보』.

2. 저서 및 논문

- 구현희, 『일제강점기 임상한의서 제세보감 연구』, 『한국의학학회지』 29-2, 2016.
 김남일, 『의서의 간행을 중심으로 살펴본 일제 강점기 한의학의 학술적 경향』, 『의사학』 15-1, 2006.
 김남일, 『한의학에 미친 조선의 지식인들』, 들녘, 2011.
 류영희, 신민교, 맹웅재, 『한국의학인명사전』, 의성당, 1991.
 박훈평, 『일제강점기 영년의생 연구』, 『한국의학학회지』 29-1, 2016.

- _____, 『일제강점기 의생 총목록 3』, 한국한의학연구원, 2017.
- _____, 『1950년대 부산동양의학전문학원』, 『항도부산』 46, 2023.
-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상공명감』, 부산상공회의소, 1954.
- 정지영·조승래·강영조, 『근대 용두산공원의 성립과 그 변용』, 『한국전통조경학회』 24-1, 2006.
- 허송암, 『경험한방 학낭』, 전국한방의학종합연구회, 1958.

3. 기타 자료

- 『역대군수』(함양소통군수실(<https://www.hygn.go.kr/01295/01322.web>) 검색일자: 2024. 8. 8.).
- 『용두산신위비』(근현대사아카이브(<https://archive.much.go.kr/data/01/folderView.do>) 검색일자: 2024. 8. 9.).

투고일 : 2024. 09. 13. 심사완료일 : 2024. 10. 31. 게재확정일 : 2024. 11. 22.

| Abstract |

Jesedang Moon kihong's life and activities in Busan

Park, Hun-Pyeong

Through this thesis, Jesedang Moon kihong(1881~1958 or 1962) who was active in state of Gyeongsang centered on Busan from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o the 1950s.

Moon kihong was an influential figure in Busan as a medical practitioner, Confucian scholar, and religious figure.

As medical doctor, Moon kihong was renowned throughout state of Gyeongsang, especially in Busan, as a clinician, and wrote clinical medicine books. He was also an educator who raised disciples working in the field of Korean medicine.

As Confucian scholar, Moon kihong claimed to be a descendant of Moon Ikjeom, formed a Confucian organization centered in Busan, and published related books.

As religious figure, Moon kihong created a Dangun-based religious group centered in Busan and published books while working there. For example, in the mid-1950s, the Yongdu mountain Prayer Meeting was established.

Moon kihong was an active figure as a medical practitioner, Confucian scholar, and religious figure centered in Busa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the 1950s. However, he left a legacy to future generations only in the field of Oriental medicine, and his influence as a Confucian and religious figure on later generations was minimal and limited to his own time. Because they were organizations created based on the high reputation of individuals, they had inherent limitations.

Moon Ki-hong's idea of worshiping Dangun can be interpreted from the perspective of 'saving the world.' As a medical professional, the context of free treatment for the poor and prayer meetings for victims who lost their homes is the same.

In conclusion, Moon kihong like his pen name, started out as a medical professional from the perspective of 'worldliness' and then engaged in social activities such as Confucianism and religion. He wanted to save the group, starting from the individual.

Key Words: Busan, korean medical doctor, Moon gihong, Jesedang, uisaeng, Yongdu mountain.

